

데뷔부터 트리플크라운...야스민 '원맨쇼'

4세트 끝나기전 이미 40득점 폭발
강성형 감독 '좌우날개 배구' 완성
IBK 김수지 통산 200호 서비스에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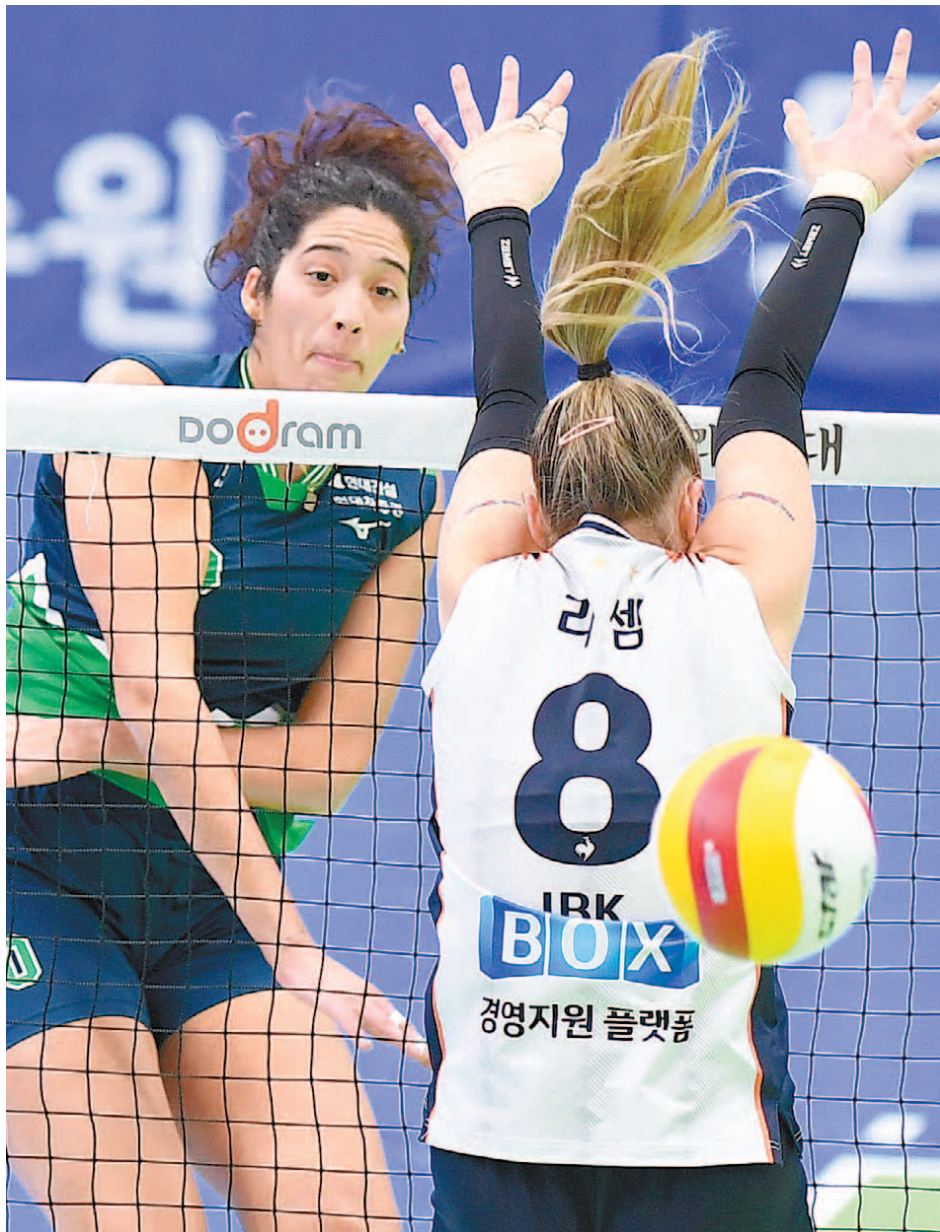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꼽히는 현대건설이 새 외국인선수 야스민의 데뷔전 트리플크라운 활약에 힘입어 홈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현대건설은 17일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2021~2022시즌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과 홈경기에서 43득점(공격성공률 55%, 4블로킹, 3서비스에이스)을 기록한 야스민의 파괴력 넘치는 고공강타를 앞세워 세트스코어 3-1(23-25 25-15 25-16 25-17) 역전승을 거뒀다.

그동안 센터 중심의 배구에서 탈피해 좌우날개 중심의 배구를 원했던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의 퍼즐 맞추기가 성공했다. 강 감독은 2016~2017시즌 남자부 KB손해보험 소속 이후 5시즌 만에 감독 통산 30번째 승리를 챙겼다. 강 감독은 KB손해보험 시절 통산 29승52패를 기록했다.

1세트 내내 현대건설이 경기를 주도했지만 중반 이후 점수는 IBK기업은행이 앞섰다. 결정적 차이는 범실이었다. 단 1개의 범실로, 7개의 현대건설보다 지속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 IBK기업은행은 김수지-김희진 국가대표 센터가 9점을 합작해 10점을 몰아친 야스민의 강력한 공격에 대응했다. 20-20에서 먼저 23점에 올라선 IBK기업은행은 이다



현대건설의 새 외국인선수 야스민(왼쪽)이 17일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IBK기업은행과 홈경기 도중 라센의 블로킹을 피해 공격하고 있다. 야스민은 이날 트리플크라운의 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사진제공 | KOVO

현의 속공과 야스민의 백어택에 동점을 허용했지만, 또 다른 도쿄올림픽 대표선수

표승주가 결정적 순간 등장했다. 세트 내내 무득점이었지만 2개의 클러치

공격으로 IBK기업은행에 1세트를 선물했다.

김수지는 2세트 3-5에서 서비스에이스를 성공시켜 개인통산 200호 서비스에이스를 기록했다. 통산 445경기 1683세트 만에 달성한 V리그 통산 9번째 기념탑이다.

현대건설은 7-8에서 야스민의 2연속 서비스에이스와 3연속 득점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1세트 48%의 공격점유율을 찍었던 야스민은 2세트에는 무려 73%의 공격성공률로 11득점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다. 중앙을 생각하고 좌우날개의 대포공격으로 점수를 내는 현대건설의 플레이 방식이 풀리가 활약했던 2014~2015시즌을 연상시켰다.

두 팀 화력 차이는 세트를 거듭할수록 더 커졌다. 3세트에는 기세가 오른 현대건설의 서브마저 강해지면서 IBK기업은행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2세트 2득점에 그쳤던 KIB기업은행 라센은 3세트에도 양효진~야스민의 블로킹에 2차례 차단당하는 등 4득점으로 무기력했다.

네트 위로 올라만 주변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야스민은 4세트 13-10에서 서브에이스를 성공시키며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4세트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40득점을 돌파한 야스민의 압도적인 V리그 데뷔전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현대건설 세터진과 세트를 거듭할수록 타점이 맞아떨어졌다.

현대건설은 공격득점 59-44, 공격성공률 44%-33%, 블로킹 12-4, 서비스에이스 5-2로 IBK기업은행을 압도했다.

수원 | 김중경 기자 marco@donga.com

‘만점데뷔’ 대한항공 링컨 “V리그 놀랍고 굉장히 좋다”

우리카드전 양팀 통틀어 31점 최다
“세터 한선수와 호흡...느낌이 좋다”



링컨

대한항공의 새 외국인선수 링컨 윌리엄스(28·호주)가 만점짜리 데뷔전을 치렀다. 대한항공은 1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개막전에서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1(25-18 27-25 19-25 25-22)로 꺾었다. 지난 시즌 창단 첫 통합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던 우리카드를 새 시즌 첫판부터 누르고 기선을 제압했다. 핀란드 출신 토미 킬라카이넨 감독(34)은 V리그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날의 히어로로는 링컨이었다. 양 팀 통틀어 가장 많은 31점을 책임졌다. 후위공격 12개, 블로킹 4개, 서비스에이스 3개 등으로 데뷔무대에서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원손 라이트 공격수인 링컨은 올 시즌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7순위로 대한항공에 등지를 들었다. 드래프트 당시만 하더라도 눈길을 끌지 못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반전이었다. 공격은 물론 서브, 수비, 블로킹에 서도 인상적 활약을 펼치며 호평을 받았다.

이미 9개국에서 뛰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링컨은 V리그에 대해 “굉장히 좋다. 모든 게 놀랍다. 만일 내가 팬이라면 V리그를 엄청 좋아할 것 같다”며 웃었다. 트리플크라운 달성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자유롭게 해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블로킹이 어디로 뜨는지, 수비가 어디로 대비할 것인지를 알려주셨다. 이를 떠올리면서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세터 한선수와 호흡에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선수는 경험이 많은 선수다. 느낌이 좋다. 앞으로 계속 호흡을 맞출 것이다. 35경기가 남았는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론 이제부터 상대팀들은 링컨을 철저히 분석하며 방어전략을 짤 것이다. 이날 패한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은 “원손잡이라 밀어치는 경향이 있는데,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링컨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경기를 치를수록 나를 알겠지만 그건 나도 똑같다. 거듭할수록 서로 똑같이 분석이 된다”며 “그 때부터 진짜 전투가 될 것이다. 매 순간 진지하게, 무엇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이재영-다영, 그리스 PAOK 합류 위해 출국

취재진 질문에 이재영만 “죄송하다”
PAOK구단은 “매우 흥분” 대환영

이재영-다영(25) 쌍둥이 자매가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합류를 위해 16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출국에 앞서 자매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해의 진출이 결정됐지만 마음이 무겁다”며 “과거 잘못된 행동을 한 책임을 져야

하고, 배구팬들과 학창시절 폭력(학폭)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국 현장에선 취재진의 질문에 언니인 이재영만 짧막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V리그 최고 인기스타였던 자매는 2020~2021시즌이 한창이던 올 2월 학창시절의 학교폭력 피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술한 논란을 낳아왔다. 전 소속팀 흥국생명 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2021~2022시즌 경기 출전에 필요한 선수등록을 포기했다. 이에 자매는 해의 진출을 타진한 끝에 PAOK와 계약했다. 그러나 대한배구협회가 이에 필요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거부해 국제배구연맹(FTVB) 직권으로 이적이 최종 성사됐다. 이적이 확정된 뒤에도 이다영의 비밀결혼과 이혼소송 사실이 전해져 또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학교폭력에 이어 비밀결혼, 이혼소송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이재영(왼쪽)-다영 쌍둥이 자매가 16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리스로 출국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을 맺은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합류한다. 사진제공 | 뉴스1

한편 PAOK 구단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테살로니키로 온다.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며 자매의 등번호와 간략한 소개를 곁들였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大할인 행사

“저잡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大할인 행사

오늘 50대한정 할인판매!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간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사용
청력에 맞추어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어폰 연결하면 양쪽 귀로 사용 가능(기본제공)

이런 때 사용하세요

-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다.
- ▶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다.
-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본 제품은 의료가기가 아닙니다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 분/ 보호용 필름을 제거하신 분

길이: 5cm
무게: 7g

80
길이: 5cm, 무게: 7g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전량 확인가능 내장
하울링 방지기능 내장

최신제품

Super A3000

무료상담전화 : 1661-9878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씬모아
서울사당지사: 02-6085-4414 오시는 길: 사당역 11번 출구 근방

1분에1000번이상! 딱딱딱! 강력하게!

편하게 누워서 자동발목 펌프기 10분이면~만보효과!

국내생산 자동발목펌프기~ 좋은선택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안마기 본체

리모컨

Made in Korea

드 선택 기능으로 강력한 파워의 솔레노이드 안마봉을 탑재하였으며 가벼운 무게와 사이즈로 손쉬운 이동이가능하다.

알아서 두드려주는 자동모드, 느긋하게 잠드는 수면모드, 자동 OFF, 풀잠들어도 OK! T.V보면서O.K! 손발이 저리고 차가운신 분, 온 몸이 쭈시고 아프신 분, 무릎이 아파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아프신 분, 등지고 누시는 분들께 제격이다. 이 제품은 과거 딱딱한 플라스틱 제질의 제품과는 달리 피부자극이 적고 발목 뿐만 아니라 목, 어깨, 허리, 등, 관절 등 8군데의 운동과 두드림으로 시원함과 자극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300분 한정특가로 258,000원에서 12만원 할인된 138,000원에 한정판 매하며 신용카드도 구입할 수도 있다.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썸모아 김선정)으로 입금하면 로젠택배로 익일 배송된다.

택배비 3,000원은 소비자 부담이다.

300분 한정 기념특가!
138,000원 무려 12만원 할인!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전화: 1661-9878 로 무료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당지사: 02) 6085-4414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실의 운동이 어려울 때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거나 층간소음 문제로 망설여진다. 소음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핫하다는 발목운동기를 소개한다. 발목자동펌프기는 단순 마사지가 아니다. 이 제품은 실내에서 건강을 챙길수 있는 좋은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단 10분으로 몸 전체가 순환이 잘되면서 발목 뭉친 근육을 탁탁쳐 강한 자극이 위로 팽팡팡! 올라가면서 전신순환을 돕는 차원이 다른 발목 펌프운동기이다.

피로는 싹~!!! 하체부터 솟아나는 순환력!
발목뿐 아니라 뭉치고 피로한 종아리도!!!

제2의 심장 발바닥 경혈점도 지압펌프! 저리는 손가락 팔목도 팽팡! 허리,어깨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쉽고 간단한 조작 방식이 편리한 리모컨 8단계 강,약 조절과 6가지 모